

신농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 용 희 교수
(한국축산경영학회 회장)

최근 우리의 양돈업은 일찌기 겪지 못했던 불안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밀어닥치는 수입개방의 물결, 부족한 노동력, 강화 일로에 있는 환경규제 등 경제환경의 악화로 업계는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게다가 만성적인 원가고와 불안정한 가격에, 급변하는 소비시장에 미처 대처하지 못하는 어려움까지 겹쳐 안절 부절 못하고 있다.

이에 즈음하여 새 정부가 제시한 신농정의 축산시책은, 축산업을 경쟁력을 갖춘 소득산업으로 육성하고, 축산물을 제값에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전략과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어, 축산관련자들로 하여금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

축정당국은 종래의 소극적인 정부주도형 시책에서 탈피하여 생산자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전업농을 육성함으로써 국제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공격적 축산으로 전환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축정의 방향은 기술 축산·고품질 축산·지속 가능한 축산·수출 축산 등 4대 신농운동에 초점을 두고 생산자로 하여금 홀로서기·일등주의·축산관련자의 하나되기·고차원의 협동조합 운동 등 4대 자구운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생산 및 가공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맛과 질의 향상을 통한 소비자 만족을 지향하고, 부산물을 자원화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고품질·저가격의 수출 가능한 축산물을 생산케 하여 양돈산업의 국내외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이를 지속산업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축정의 방향은 참으로 희망적이고도 기대를 갖게하는 방향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시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생산자의 자발적인 의지와 자율적인 자구노력을 촉구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인 바 이 또한 장기적으로 면에서 펍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겠다.

신농정의 축정 방향은 급변하는 국내외적 경영환경과 무역환경을 감안할 때 오히려 그 시행이 때늦은 감이 있을 정도로 공감을 느끼게 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희망과 기대감과는 달리 아직도 많은 양돈 관련자들이 이에 대해 적지 않은 불안감과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웬 일일까?

필자는 이에 대한 여러가지 이유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가지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축산인들이 과거에도 수없이 겪어 왔던 실망을 이번에도 또 겪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누적된 불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많은 생산자들은 기대를 걸고 열심히 믿고 따르다가 그 이후에 부담하게 된 위험으로 인해 실망이 컸던 과거의 경험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축산인들은 신농정 및 축정당국과 그 책임자들이 진정한 축산인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상대적인 불이익의 그늘에서 참고 견뎌 온 농민들은 명예와 지위를 걸고 그들을 도와 주장을 관철시켜 줄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진심으로 그들의 주장을 대변해 줄 진정한 지도자를 발견하면 성공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업적인 계산을 떠나 동반자적 입장에서 믿고 따를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의구심을 품은 채 관망하고 있는 것이다.

세째, 많은 축산인들은 제시된 축정의 방향과 시책에 대해 실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문제와는 적지 않은 거리감이 있어 이상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생산자들은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화려한 정책의 제시가 있었지만 그것의 실현은 극히 미미했음을 상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당국은 절대 불리한 가격결정(미국의 돈육 생산비는 한국 대비 약 1/2)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양돈산업의 생존과 성장의 주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그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과 같은 좋은 시장이 있어 설령 그곳에 가격결정·비가격경쟁의 수단을 유효하게 구사한다고 하더라도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짐작을 갖고 있다. 더구나 만약 수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처럼 그 성과와 소득은 특혜를 누리는 소수 특정인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고, 호황과 불황에 따라 사정이 달라지는 불규칙적·불안정한 수출사업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경쟁을 외치면서도 경쟁상대국의 상품및 가격동향을 비교할 수 있는 경제지표가 제시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지적돼야 할 사항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듯, 먼저 경쟁상대국의 지표와 이를 극복할 우리의 경제지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양돈산업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즈음하여 제시된 축정당국의 정책 방향과 실천 전략은 많은 이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고 양돈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과 각오를 갖게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양돈 관련자들은 이에 대해 의구심을 갖은 채 믿고 따르기를 주저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없으면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 당국이 제시한 축정의 성공 여부는 기본적으로 축산인들의 호응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축산기자재와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마사회의 농림수산부로의 이관 등 축산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목소리에 합창하여 그 관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축산인들은 그 성공여부와는 관계없이 축정당국의 뜻에 한 발 가까이 다가서서 믿음을 가지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